

등록번호

여성인권-결과보고 2018-3

# 2018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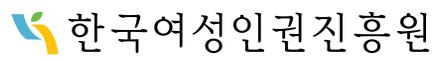


# 2018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b>I</b>	<b>사업 개요</b>	<b>1</b>
<b>II</b>	<b>피해자 지원 실적</b>	<b>11</b>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13
	가. 삭제 지원 현황	13
	나. 상담 지원 현황	22
<b>III</b>	<b>사업평가</b>	<b>27</b>
	1. 사업 성과	29
	가. 피해촬영물 삭제 활동의 공적 지원 체계화	30
	나.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으로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31
	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의 법체계 사각지대 발굴	32
	라. 디지털 성범죄의 통합지원 방안 마련 및 연계 구축	32
	마. 디지털 성범죄의 글로벌 대응 역량 구축	33
	2. 추후 개선 방향	34
	가. 디지털성범죄 초기 대응력 강화	34
	나. 유포 대응 전문 지원 체계 모색	35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기능 강화	36
	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37
	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38
	바. 젠더 기반 폭력 피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대응역량 강화	39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C H A P T E R

# 사업 개요

2018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사업

2. 사업 기간 : 2018. 4. 30. ~ 2018. 12. 31.

3. 사업 예산 : 649,000,000원

4. 사업 대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일반 국민

5. 사업 배경

-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기기의 발달이 젠더에 대한 기존의 차별적 인식 및 성산업과 결합하여 불법촬영, 유포, 성적 사이버괴롭힘 등의 형태로 온라인 공간에 광범위하게 확산,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
-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체계적 피해자 지원 필요성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었음.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2017.9.26.)하여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과 조치계획을 제시함.

-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 필요성
  -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은 여성 폭력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매개하여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임.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시민적 윤리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젠더 감수성 제고가 함께 필요함.

## 6.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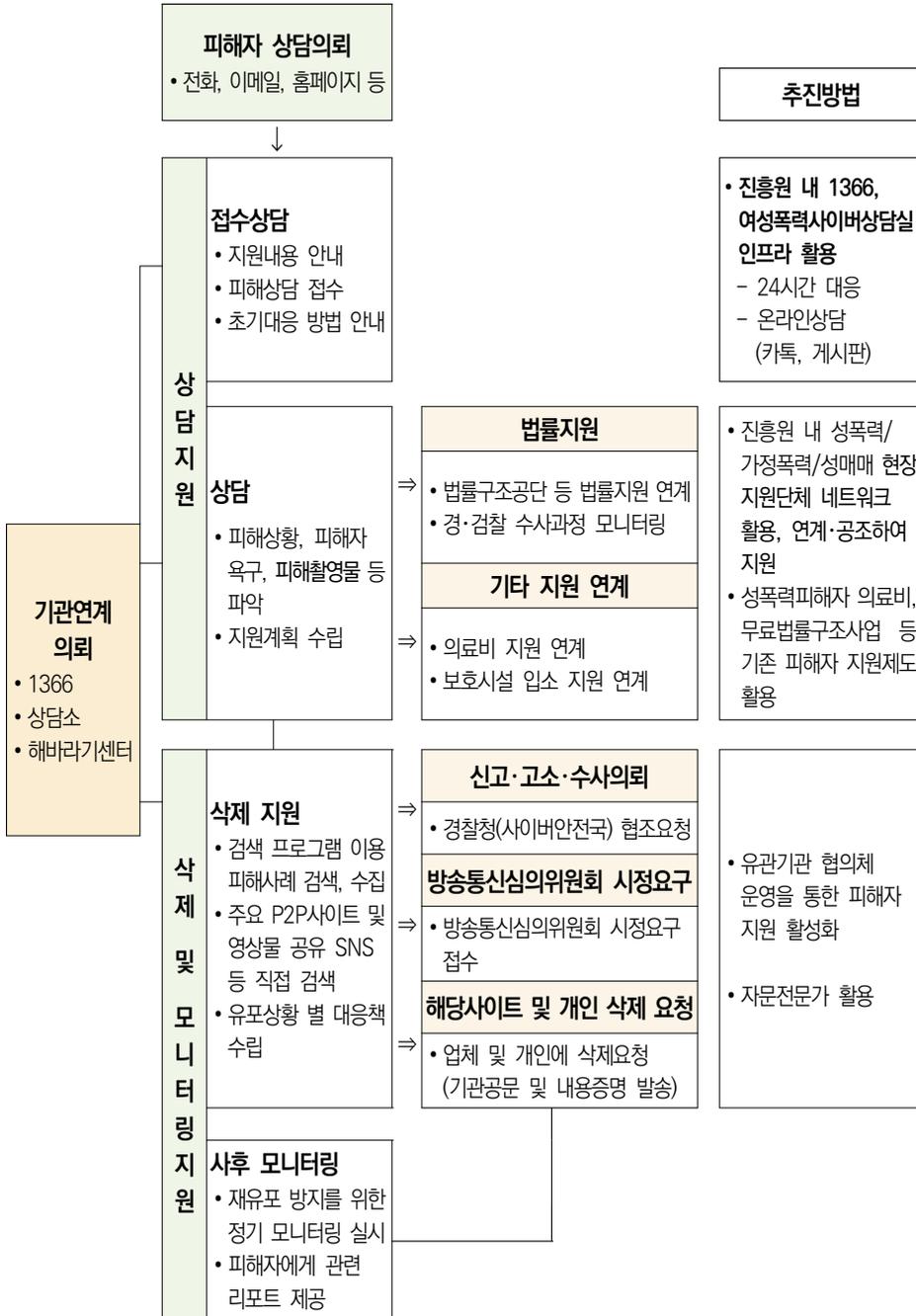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재유포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적 보호체계 강화
- 여성 폭력 지원 체계 연계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성매매 등 다른 여성 폭력과 연계되어 발생, 기존의 여성폭력 지원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강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예방 강화
  -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매개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폭력이 확산됨.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범죄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함.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 7. 사업 내용

### 가. 사업 추진 체계

- 본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가족부의 민간보조사업인 “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2018년 4월 30일 개소,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음.

## 나.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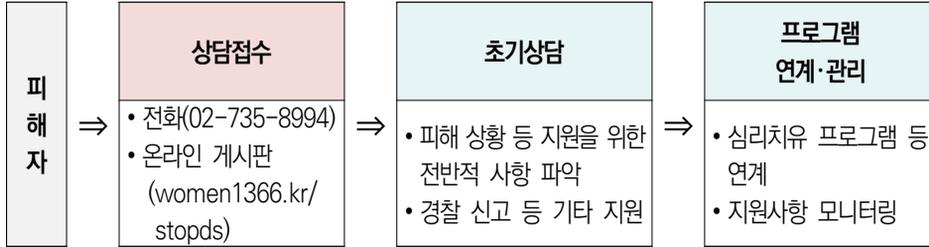
### 다. 세부 사업별 추진 내용

세부 사업명	세부 추진 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 지지상담 및 사회적 자원 연계</li>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포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li> </ul> </li> </ul>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간담회 개최 및 협의체 운영</li> </ul>
피해자 지원 업무 매뉴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웹페이지에 피해 유포물 삭제 매뉴얼 제공</li> <li>- 피해자 지원 업무 매뉴얼 제작</li> </ul>
사례분석 및 수퍼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직접지원 사례회의 및 전문가 수퍼비전 개최</li> <li>- 토론회 '이후 포럼' 개최</li> </ul>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 소진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강화 교육 수강</li> <li>- 피해자 지원 인력 소진방지 워크숍</li> </ul>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홍보 및 인식개선 목적 소책자 제작 및 배포</li> <li>- 언론 대응 및 광고 게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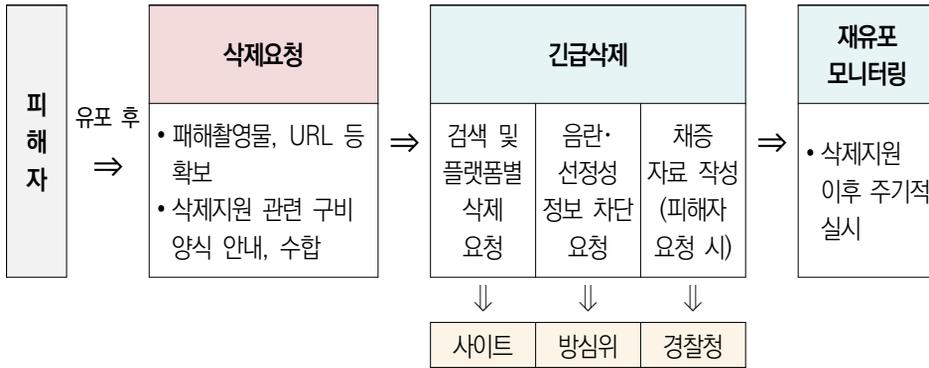
## 라. 사업 진행 과정

- 비동의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한)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성적 사진 합성 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화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지원을 신청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지원팀은 초기상담에서 유포 범위 등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비동의 유포가 확인되어 피해유포물 삭제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삭제동의서 등 필요서류가 구비된 후 삭제지원팀에서 유포물 삭제를 지원한다.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삭제지원 기간이 설정되며, 이 때 매달 삭제 지원 결과 보고서가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집중 삭제 지원 기간 이후는 모니터링 기간으로, 주기적으로 유포물 검색과 삭제가 지원되며,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보고서가 제공된다. 삭제 지원은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상담 지원과 삭제 지원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된다. 삭제지원팀에서는 삭제 지원, 경찰 채증 협조, 결과보고서 발송을 담당하며, 상담지원팀에서는 정보제공, 지지상담, 법률/의료 자원 연계, 상담소 및 쉼터 등 사회적 자원 연계 등을 담당한다.

### 1) 상담 지원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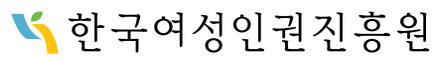


### 2) 삭제 지원 업무 흐름도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CHAPTER

# 피해자 지원 실적

2018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가. 삭제 지원 현황
  - 나. 상담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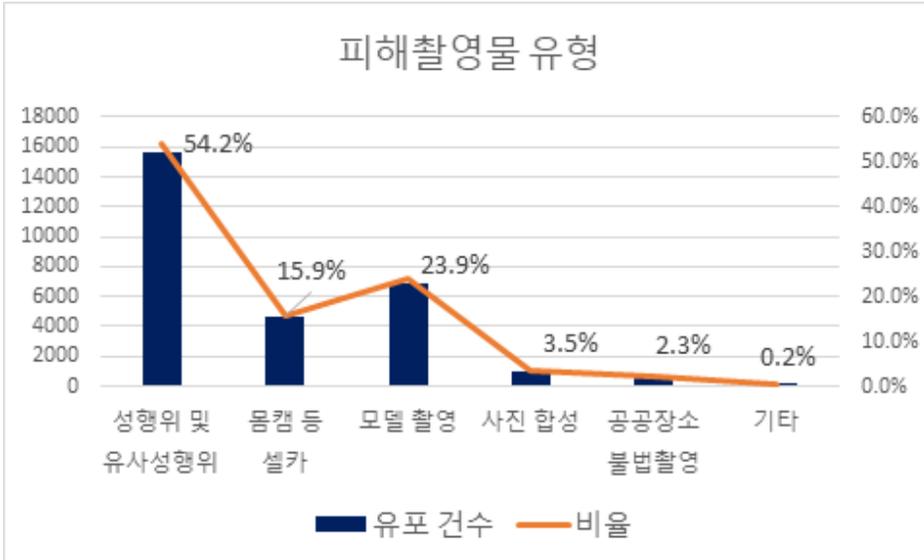
## II. 피해자 지원 실적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가. 삭제 지원 현황

- 피해촬영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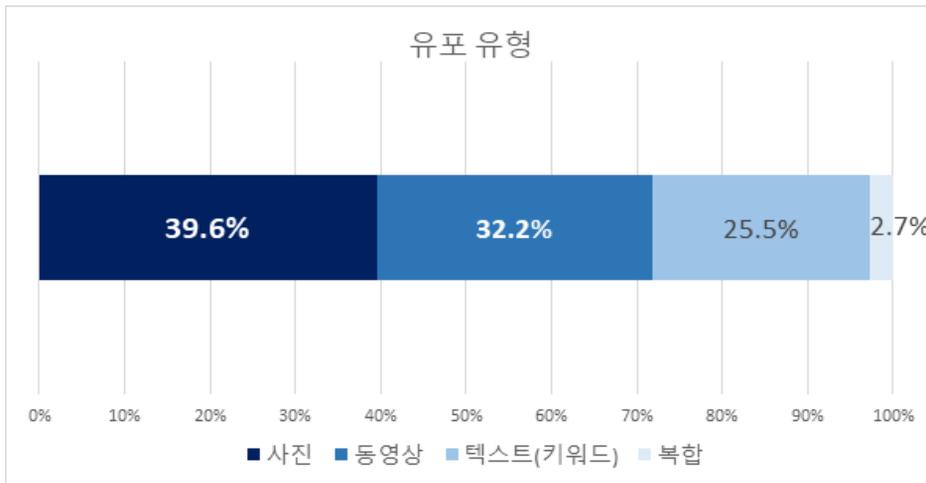
피해촬영물 유형	합계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몸캠 등 셀카	모델 촬영	사진 합성	공공장소 불법촬영	기타
지원 건수 (건)	28,879	15,647	4,594	6,903	997	655	83
비율(%)	100	54.2	15.9	23.9	3.5	2.3	0.2



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들의 피해촬영물 내용을 유형화했을 때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유형이 15,647건(5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촬영회 피해 등 전문 촬영자에 의해 모델로서 촬영된 유형이 6,903건(23.9%), 몸캠 등 스스로의 신체를 촬영한 유형이 4,594건(15.9%), 카카오톡이나 SNS에 게시한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한 유형이 997건(3.5%) 순으로 이어짐. 이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유형이 655건(2.3%), 사이버불링 등을 포함한 기타가 83건(0.2%)으로 나타남.

• 유포 유형

유포 유형	합계	사진	동영상	텍스트 (키워드)	사진/동영상 복합
지원 건수 (건)	28,879	11,431	9,295	7,365	788
비율(%)	100	39.6	32.2	25.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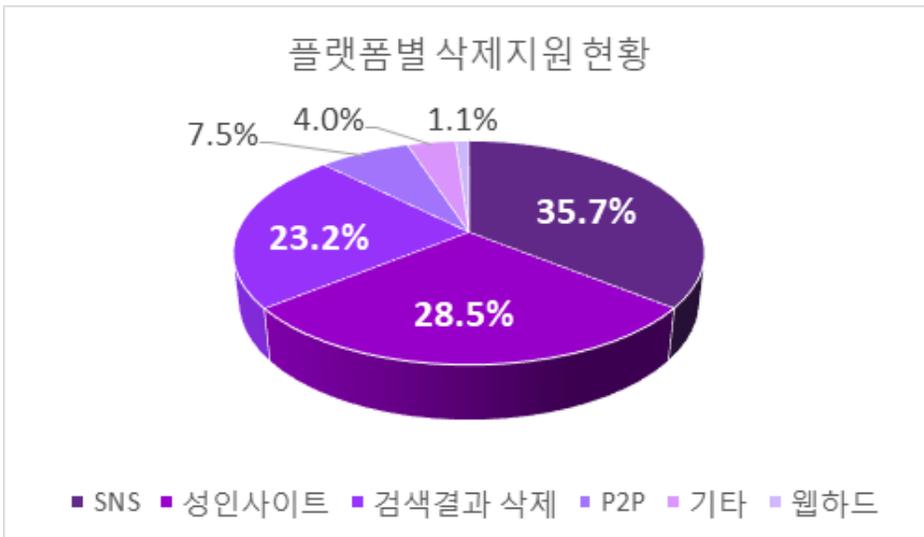
삭제 지원한 유포 유형은 사진이 11,43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한 동영상이 9,295건(32.2%)으로 다음으로 많았음. 이처럼 피해촬영물은 대체로 사진 및 동영상 등 촬영물이 대부분이나 '00녀' 등 키워드를 포함한 텍스트 유형도 7,365건(25.5%)으로 많은 비율을 보임. 다음으로는 사진과 동영상이 함께 유포되고 있는 복합적 게시물이 788건(2.7%)으로 나타남.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사진이나 동영상뿐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도 주요한 유포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남. 키워드를 통해 피해자 신상을 직접 특정하거나, 피해촬영물에 제목을 붙임으로써 불법 영상이 아닌 소비할 수 있는 '성적 콘텐츠'로 인식하게 함.

현재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은 사진 및 동영상 유형의 피해촬영물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피해를 확산시키는 키워드를 포함한 텍스트 유형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하고 있음.

•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

플랫폼	합계	SNS	성인 사이트	검색결과 삭제	P2P	기타	웹하드
지원 건수 (건)	28,879	10,312	8,239	6,705	2,158	1,148	317
비율(%)	100	35.7	28.5	23.2	7.5	4.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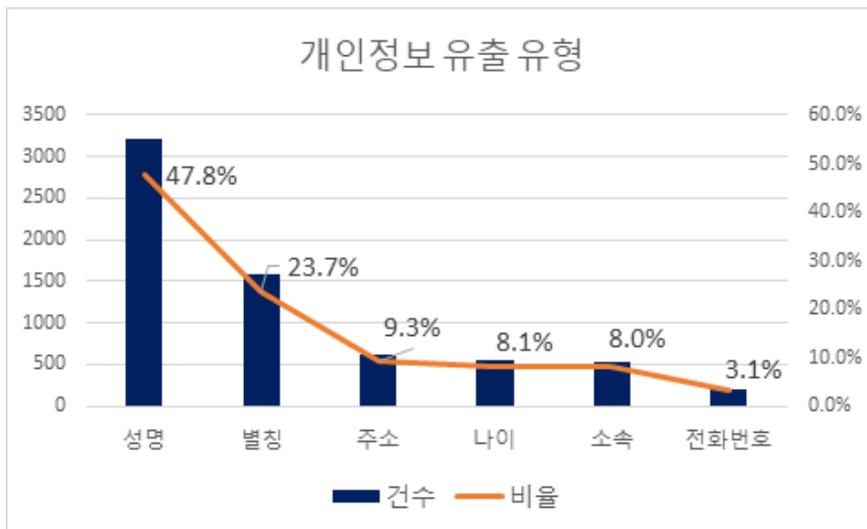
삭제 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SNS가 10,312건(35.7%)로 가장 많았고, 성인사이트 8,239건(28.5%), 검색결과 삭제 6,705건(23.2%), P2P 2,158건(7.5%), 기타 1,148건(4.0%), 웹하드 317건(1.1%) 순으로 나타남. 기타에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블로그가 포함됨.

업로드 및 공유가 용이한 플랫폼인 SNS에서 유포물의 확산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일부 성인사이트는 특정 SNS를 연동하여 피해촬영물을 재유포하기도 함.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성인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로서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있음.

• 개인정보 유출 유형

개인정보 유출 유형	합계	성명	별칭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
유출 건수(건)	6,700	3,202	1,591	622	546	533	206
비율(%)	100	47.8	23.7	9.3	8.1	8.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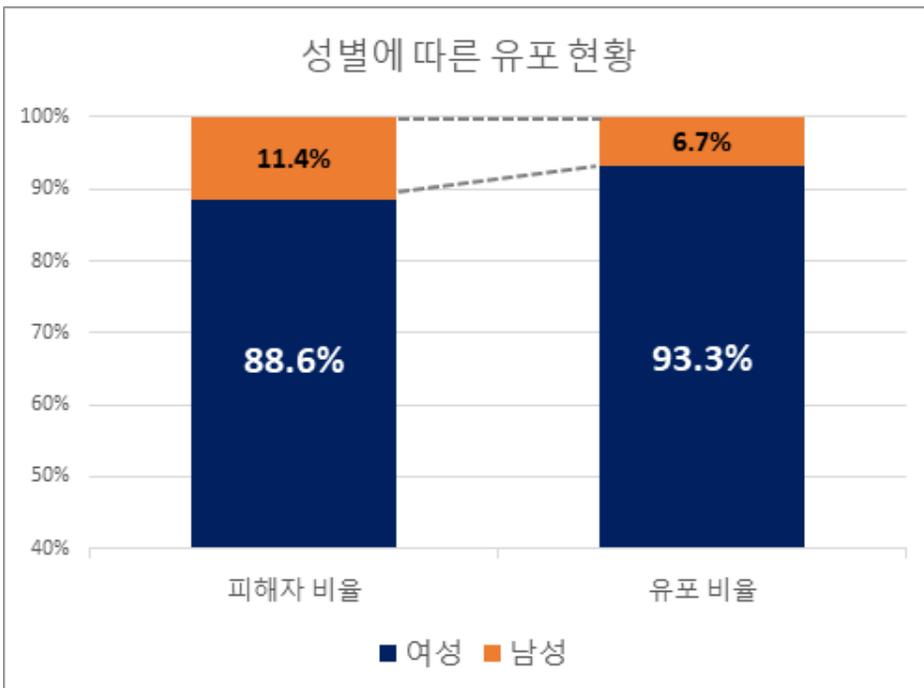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이 유포될 때 피해자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총 28,879건의 삭제 건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6,700건으로 23.2%에 달함. 성명이 3,202건(47.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별칭 1,591건(23.7%), 주소 622건(9.3%), 나이 546건(8.1%), 소속 533건(8.0%), 전화번호 206건(3.1%) 순으로 나타남.

피해촬영물의 유포와 동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함. 피해 사실이 알려져 일상생활에 곤란함을 겪거나 개명을 하는 등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성별에 따른 유포 현황

성별	합계	여성	남성
지원 건수(건)	28,879	26,949	1,930
비율(%)	100	93.3	6.7



상담 접수된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88.6%, 남성 11.4%의 비율로 나타남. 유포 건수는 여성 93.3%, 남성 6.7%로 나타나 접수 건수에 비해 유포 비율에 있어서 여성 피해 비율이 4.7%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여성 피해자의 경우 유포물 종류와 유포 범위가 더 광범위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실제 삭제 지원 건수도 여성 피해자 26,949건(93.3%), 남성 피해자 1,930(6.7%) 건으로 집계됨. 이처럼 피해자의 성별이 대다수 여성 피해자이며, 유포 수도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의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피해촬영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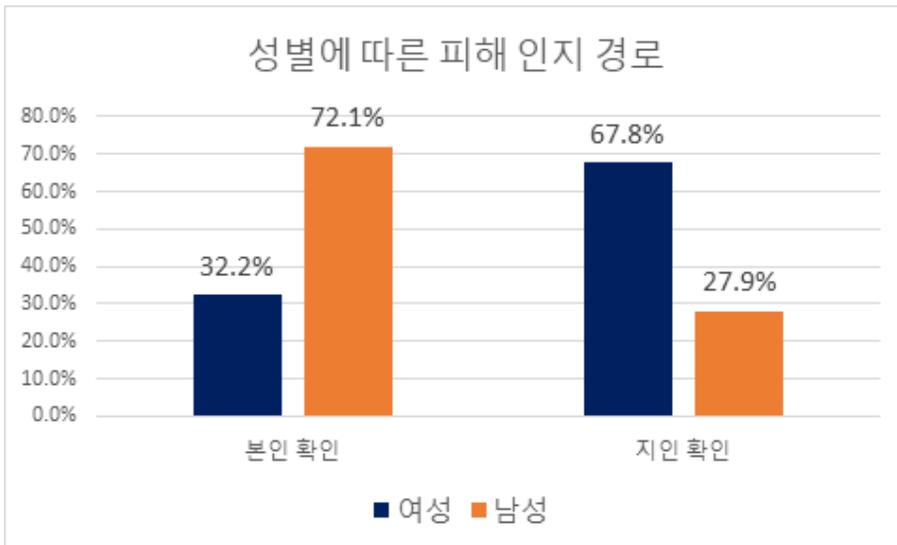
피해촬영물 유형	합계	성적 촬영물	몸캠 등 셀카	모델 촬영	사진 합성	공공장소 불법촬영	기타
여성 피해자 지원 건수(%)	26,949 (100)	14,254 (52.9)	4,454 (16.5)	6,542 (24.3)	997 (3.7)	655 (2.4)	47 (0.2)
남성 피해자 지원 건수(%)	1,930 (100)	1,393 (72.2)	140 (7.3)	361 (18.7)	0 (0)	0 (0)	36 (1.8)

성별에 따라 피해촬영물의 유형의 양상 역시 다르게 나타남. 여성은 사진 합성 유형, 공공장소 불법촬영 유형이 각각 997건(3.7%), 655건(2.4%)인 반면 남성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음. 모델 촬영에 의한 경우도 6,542건(24.3%)으로 남성 361건(18.7%)에 비해 높음. 여성 피해자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노출되는 반면 남성은 성적촬영물, 몸캠 등 셀카 유형이 많았음.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로 인한 피해는 여성, 남성 모두에게 가장 높은 비율로 각각 14,254건(52.9%), 1,393(72.2%)에 달함.

위 통계는 사진 합성 및 공공장소 불법촬영 피해가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일상 속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심각한 피해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가 됨.

• 성별에 따른 피해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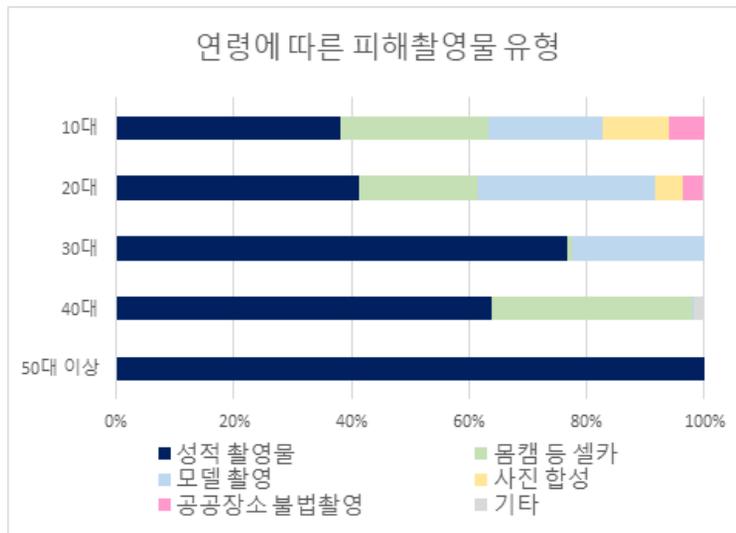
피해 인지 경로	합계	본인 확인	지인 확인
여성 피해자 지원 건수(%)	16,826 (100)	5,425 (32.2)	11,401 (67.8)
남성 피해자 지원 건수(%)	734 (100)	529 (72.1)	205 (27.9)



여성과 달리 남성은 직접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음. 인지 경로를 알 수 없는 11,319건을 제외하고 총 16,826건 중 여성의 경우 타인에 의해 인지한 비율이 67.8%(11,401건)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본인 스스로 인지한 비율이 72.1%(529건)이었음.

• 연령에 따른 피해촬영물 유형

연령	합계	성적 촬영물	몸캠 등 셀카	모델 촬영	사진 합성	공공 장소	기타
10대 지원 건수	2,638	1,003	664	518	294	159	0
20대 지원 건수	14,829	6,106	3,006	4,482	703	496	36
30대 지원 건수	8,466	6,498	70	1,898	0	0	0
40대 지원 건수	2,499	1,593	854	5	0	0	47
50대 이상 지원 건수	447	447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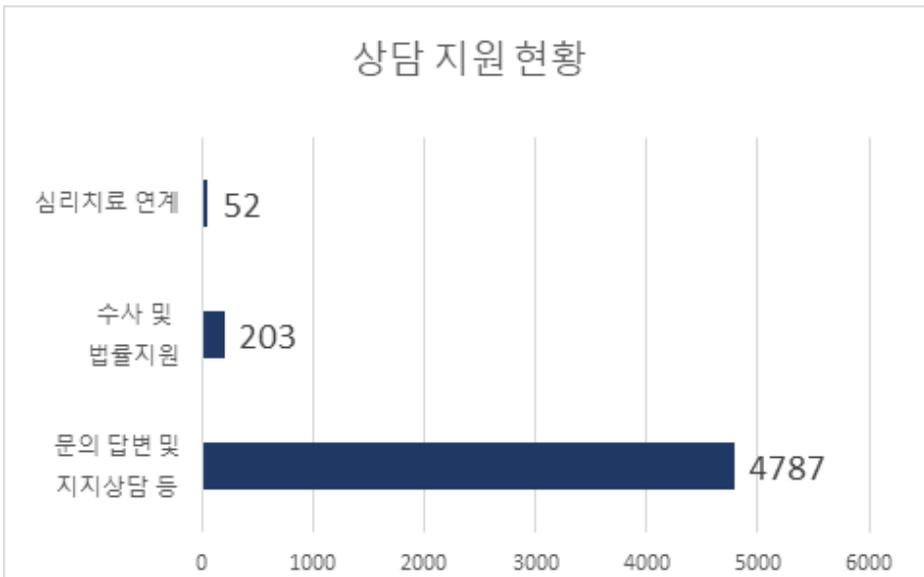
피해자 연령에 따라 피해촬영물 양상이 크게 달라졌음. 모든 연령대에서 피해촬영물 중 성적 촬영물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진 합성 유형은 10대와 20대에서만 나타남. 사진 합성 피해촬영물 외에도 10대 피해자들은 몸캠 등 셀카, 공공장소 불법촬영 유형 등 다양한 피해촬영물 유형이 나타났음.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사진 합성이나 모델 촬영 등 피해촬영물은 나타나지 않고 성관계 영상 등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을 중심으로 나타남.

디지털 성범죄 중 사진 합성 유형은 SNS를 활용한 성적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SNS 이용률이 높은 1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러한 사진 합성 유형은 쉽게 제작 및 제작 의뢰가 가능하여 범죄가 아닌 가벼운 또래 놀이문화로 인식되기도 하는 등 왜곡된 성문화를 바탕으로 발생함.

## 나. 상담 지원 현황

### • 상담 지원

지원 내용	합계	문의 답변 및 지지상담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치료 연계
지원 건수(건)	5,042	4,787	203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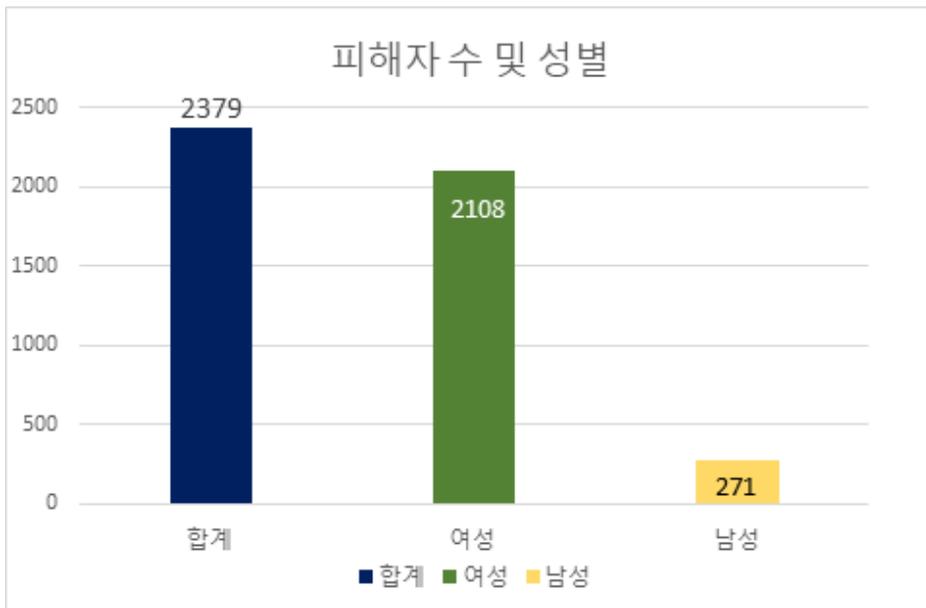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2월 31일까지 총 5,042건의 상담 지원을 제공함.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문의 답변 및 지지상담이 4,7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심리치료 연계 등이 각각 203건, 52건으로 나타남.

유포 협박, 유포 불안 등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문의 답변 및 지지상담 등 센터의 직접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피해자 수 및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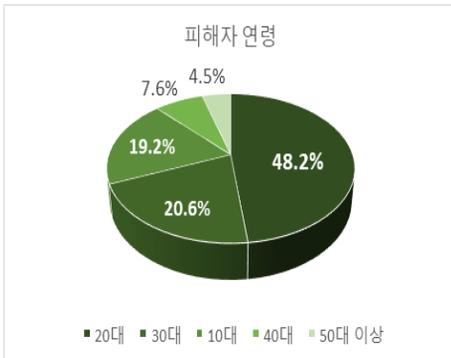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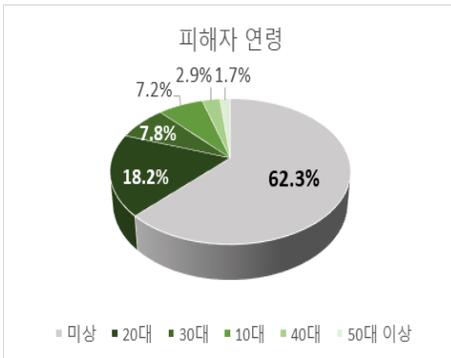
	합계	여성	남성
피해자 수(명)	2,379	2,108	271
비율(%)	100	88.6	11.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약 8개월간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총 2,379명이었고 과반수인 2,108명(88.6%)이 여성에 해당함. 남성은 271명(11.4%)으로 나타남.

• 피해자 연령

	합계	미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피해자 수(명)	2,379	1,482	172	432	185	68	40
비율(%)	100	62.3	7.2	18.2	7.8	2.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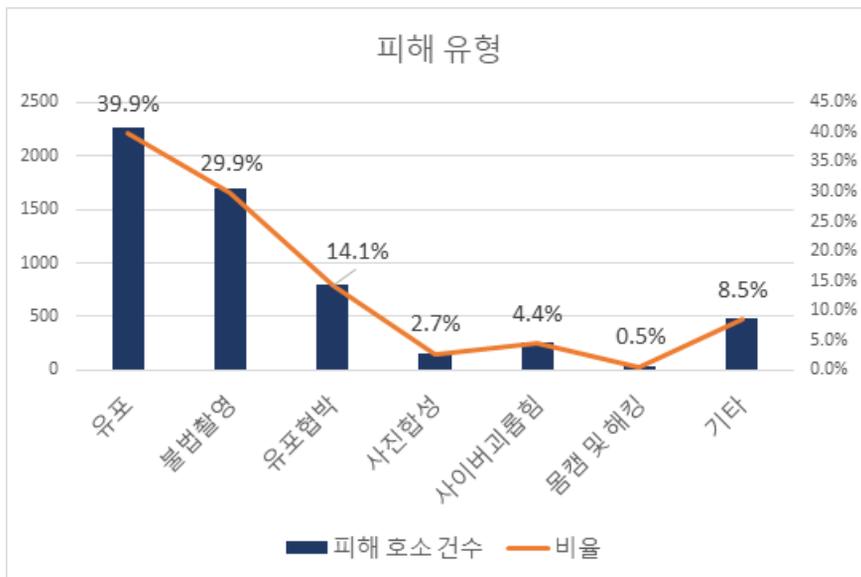
※ 미상 제외 그래프(오른쪽)

2,379명 중 1,482명(62.3%)의 피해자가 연령 미상으로 나타남.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연령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접수된 피해자 중 20대가 432명(18.2%)으로 가장 많고, 30대, 10대, 40대 순으로 각각 185명(7.8%), 172명(7.2%), 68명(2.8%)으로 나타남.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의 피해 접수는 40명(1.7%)으로 가장 낮았음.

•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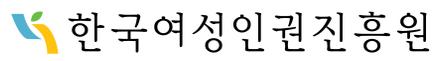
피해 유형	합계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몸캠 및 해킹	기타
피해 호소 건수 (건)	5,687	2,267	1,699	803	153	251	31	483
비율(%)	100	39.9	29.9	14.1	2.7	4.4	0.5	8.5



비동의 유포 및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음. 각각 2,267(39.9%), 1,699건(29.9%)에 달함. 유포협박, 사진합성, 사이버괴롭힘 등도 803건(14.1%), 153건(2.7%), 251건(4.4%)으로 총 1,207건(21.2%)로 나타남. 2,379명의 피해자가 총 5,687건의 피해를 호소하였음.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복합적인 피해 양상을 보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유포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비동의 유포, 사진합성-사이버 괴롭힘 등 동시에 여러 유형의 피해를 경험함.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사업평가

2018년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1. 사업 성과

- 가. 피해촬영물 삭제 활동의 공적 지원 체계화
- 나.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으로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의 법체계 사각지대 발굴
- 라. 디지털 성범죄의 통합지원 방안 마련 및 연계 구축
- 마. 디지털 성범죄의 글로벌 대응 역량 구축

## 2. 추후 개선 방향

- 가. 디지털성범죄 초기 대응력 강화
- 나. 재유포 대응 전문 지원 체계 모색
-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기능 강화
- 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바. 젠더 기반 폭력 피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



## III. 사업평가

### 1. 사업 성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내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인 「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위탁받아 2018년 4월 30일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디지털 성범죄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음.
- 본 사업은 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30일 이래 약 8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지원 5,042건, 삭제지원 28,879건 (2018. 12.31.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 이뿐 아니라 센터는 기존의 여성 폭력 지원 기관들인 성폭력 상담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 및 법률지원 203건, 심리치료 연계 52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가. 피해촬영물 삭제 활동의 공적 지원 체계화

- 의의① :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를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함.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을 최초로 설립하였다는 데 본 센터 개소의 의의가 있음.
- 의의② : 본 센터의 개소는 지금까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사설 업체를 통해 피해촬영물을 삭제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가 삭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로 작용함.
- 의의③ : 센터에 의한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조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성과 : 8개월 동안 수행된 시범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삭제 지원사업은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내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구가 설립되는 계기를 만들어냄.

#### 나. 피해촬영물 삭제지원으로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촬영물의 유포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도 가해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복합적인 젠더 폭력 피해가 지속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존의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지원센터, 1366에서는 삭제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 지대로 남아있었음.
- 본 센터는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삭제지원 활동을 수행하여, 촬영물의 유포 피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법·제도적인 공적지원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함.

#### 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의 법체계 사각지대 발굴

- 여성가족부는 본 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발굴해 내어 디지털 성범죄 전문지원체계 구축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함.
- 한 해 동안 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냄.

#### 라. 디지털 성범죄의 통합지원 방안 마련 및 연계 구축

- 기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젠더폭력 지원체계 기관과의 협업 및 여성 가족부의 다양한 정부 부처와의 소통을 동시에 이끌어내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삭제지원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수사 및 법적 지원,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심의요청 등을 수행해 왔음.

#### 마. 디지털 성범죄의 글로벌 대응 역량 구축

-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공간의 확장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본 센터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갖추어 왔음.
- 본 센터는 성인사이트, SNS, P2P 등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삭제지원 성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글로벌 대응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음.

## 2. 추후 개선 방향

### 가. 디지털성범죄 초기 대응력 강화

-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디지털 공간의 확장성과 무한 재생성으로 인해 영성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피해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는 특징을 가짐. 따라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촬영물의 최초 유포부터 재유포를 방지하고 증거수집 및 수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상담 지원과 삭제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근본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성폭력 피해 지원과는 차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삭제 및 재유포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삭제 인원을 증원하였고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향후 증원된 삭제 인력을 통해 불법 촬영 후 유포될 확률이 높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초기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나. 유포 대응 전문 지원 체계 모색

-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증해야 삭제지원에 착수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근본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 강화, 관련법 개정과 발의, 삭제조치 강화 방안의 강구 등을 각급 부처와 기관에서 협력해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성적 사진 합성 및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성매매 여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촬영물을 게시 또는 판매하는 플랫폼에 대한 삭제지원 및 규제 강화, 유포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추진하여 현행법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임. 또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유포 영상 삭제에 있어 수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도모하고 방심위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기능 강화

-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피해를 입증하는 기존의 지원체계 속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상담, 수사지원, 삭제지원,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보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사업은 1년 단위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사업이 종료 되면 차년도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장기적인 통합지원 발전 방안을 모색·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이 필요함.
- 향후 본 센터에서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및 쉼터 등 연계 기관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에게 통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향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전문지원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사건 이해, 법제도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하고 젠더폭력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제공자가 지원 과정과 소속 기관에 따른 해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제도를 적절하게 제공하며, 수사 및 재판절차와 각종 법률 용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 및 전문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함.
- 본 센터와 협력관계인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1366 등 기존 성폭력상담센터와의 디지털 성범죄 맞춤형 현장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문 대응인력을 배치·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성폭력상담 기관 상담원 또는 지역사회 젠더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역량강화, 현장지원 교육, 지역사회 전문가 양성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상담역량을 강화해야 함.
- 지속적인 종사자의 소진방지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젠더폭력에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종사자들이 무기력증, 우울증을 겪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종사자 소진방지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 건강검진 시 전문가 정신상담을 의무화·정기화 하는 등 소진방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센터에서는 내부 직원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신 경향 및 기술 등 전문성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직원 소진 방지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소진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개별 심리 상담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현재 디지털성범죄는 완전삭제가 어려워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명백한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호기심에 의해 흥미 요소로 소비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매체 및 공간이 지니는 시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디지털 시대의 시민적 윤리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노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가이드북의 개발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확대 시행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 연계 홍보를 통해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임.

#### 바. 젠더 기반 폭력 피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대응역량 강화

- 대다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촬영물 유포의 차단 및 삭제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촬영물 유포의 근원지인 해외 성인사이트 차단, 폐쇄 등 디지털 환경 자체의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 센터에서는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해외에서 비슷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등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글로벌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